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서울대학병원 치료방사선과에서 방사선 치료받는 구강 설 편평 상피 세포암환자 51례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조사를 시행하였다. 방사선 단독 치료군 병기 분포는 총 34례로 병기I이 10례, 병기II가 7례, 병기III이 8례, 병기IV가 9례 였고 수술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환자는 총 17례로 병기I이 6례, 병기II가 6례, 병기III이 2례, 병기IV가 3례 였다. 방사선 단독 치료군에서 IOC는 13례, 자입요법은 5례에서 시행되었고, 두요법이 같이 시행된 경우 2례가 있었다. 방사선 단독 치료는 5075-10040cGY가 시행되었는데, IOC시행군은 5600-10041cGY, 자입요법 시행군은 8000-10041cGY가 시행되었다. 수술후 방사선 치료는 4500-8500cGY가 시행되었다. 방사선 단독 치료군 5년 생존율은 17.8%로 병기I은 38.9%, II는 25.0%, III은 17.9%, IV는 0.0%였다. 수술후 방사선 치료군 5년 생존율은 74.1%로 병기I은 83.3%, II는 80.0%, III은 50%, IV는 50%였다. 방사선 단독 치료군의 완전관해율은 47.0%(16/34), IOC시행군은 53.8%(7/13), 자입요법 시행군은 60.0%(3/5)였다. 구강 설 편평상피 세포암 조기병소의 치료성적은 수술과 방사선 치료의 경우 거의 동일한 보고가 있으나 이번 분석에 있어 생존율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원발병소 퇴치에 필요한 선량보다 적은양의 방사선치료가 방사선 단독 치료군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IOC이나 자입요법의 적극적인 시행과 방사선 단독치료 실패시 수술요법의 시행으로 국소치료를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생존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26

국한성 진행 비인강암에서 선행약물요법 및 방사선 병용치료와 방사선 단독치료의 효과

연세의대 내과, 치료방사선과, 연세암센터
 최진혁* · 임호영 · 정현철 · 유내춘
 고은희 · 김주향 · 노재경 · 서창욱
 김귀연 · 노준규 · 김병수

비인강암은 방사선치료가 주된 치료이나, 국소 재발 및 원격전이가 흔하다. 최근 방사선 치료전에 선행약물요법을 시행하여 국소치료의 효과상승 및 원격전이의 발생을 막아 관해지속기간 및 생존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1986년 1월부터 1992년 6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 및 연세암센터에 내원하여 국한성 진행 비인강암으로 확진된 환자가운데 과거치료력이 없는 52명중 선행약물요법(5-FU 1000mg/m² day 1-5, cisplatin 100mg/m² day 1, q 3 weeks for 2-3 cycles), 방사선치료(원발부위 : 6000-7500cGy, 하경부 : 4500cGy) 그리고 유지약물요법(5-FU 1000mg/m² day 1-5, cisplatin 100mg/m² day 1, q 3 weeks for 3 cycles)을 시행하거나 추시 관찰하는 치료를 시행한 23예(A군)와 방사선치료만 시행한 29예(B군)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체 대상환자는 52명으로 남자 41례, 여자 11례(비 3.7 : 1)이었으며, 중앙연령은 50.0세(14~77세) 였다. A군중 유지약물요법을 시행한 경우는 13례였고 10례는 시행하지 않았다.

2) 세포형은 편평상피암이 23례(44.2%), 미분화성암이 29례(55.8%)였고, 병기는 A군은 전례가 IV였고, B군은 III가 2례, 나머지 27례는 IV이었다. T 및 N 병기 비율은 양군간에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3) A군에서 선행약물요법후 완전관해는 3례(13.0%), 부분관해 18례(78.3%), 안정성병변 2례(8.7%) 였고, 방사선 치료후는 완전관해 16례(69.6%), 부분관해 5례(21.7%), 진행성병변 2례(8.7%)를 나타내었고, B군에서는 완전관해 21례(72.4%), 부분관해 7례(24.1%), 안정성병변 1례(3.5%) 였다.

4) 대상환자의 진행정지 및 전체 생존기간은 아직 중앙치에 도달 안했고, 대상환자 전체의 4년 진행정지 생존율은 54.2%, A군은 53.2%, B군 56.7% 였고, 전체환자의 4년 생존율은 56.4%, A군 58.8%, B군 55.8%로서 양군간에 유의있는 차이는 없었다.

5) 양군 모두에서 세포형, T 및 N 병기에 따른 진행정지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의 유의있는 차이는 없었고, A군에서 유지약물요법의 시행여부에 따른 진행정지 및 전체생존율의 차이도 없었다.

6) 재발부위는 국소재발이 11례, 원격전이가 8례였고, 양군사이에 재발양상의 의의있는 차이는 없었다.

7) 약물 및 방사선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모두 가역성이었으며, 부작용 정도도 수용할 만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선행약물요법 및 방사선치료 병용요법은 방사선치료 단독요법에 비해 우월한 관해율 및 생존율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으며, 향후 보다 많은 예를 대상으로 하는 제 III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7

두경부암환자에서 선행항암요법(5-FU, Cisplatin)후 구강점막염 발생과 Allopurinol 예방효과

가톨릭의대 내과, 이비인후과**

강진형* · 문한림 · 홍영선 · 김훈교
이경식 · 김동집 · 조승호** · 서병도**

두경부 암환자에서 5-FU와 cisplatin 병합 선행항암요법시 부작용중 5-FU에 의한 구강점막염은 심한 통증을 일으키며 cisplatin에 의한 오심/구토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항암제치료후 심한 영양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연자들은 1987년 부터 1992년 까지 5-FU와 cisplatin 선행항암요법을 받은 85명의 국소진행성 두경부암환자에서 구강점막염의 발생빈도와 allopurinol의 예방효과를 조사하였다.

1) 대상환자 중 남자가 74명, 여자가 15명이었고, 중앙연령은 53세(19~79세)였다.

2) 원발병소는 nasopharynx 26명, paranasal sinus 18명, larynx 19명, oropharynx 15명, hypopharynx 10명순이었다.

3) 병기는 II기 3명, III기 25명, IV기 61명이었다.

4) 제 1회 항암요법후 구강점막염은 54명(60.7%)에서 발생하였다.

Grade 1 12명, Grade 2 28명, Grade 3 14 명이었다.

5) 15명이 제2회 항암요법시 allopurinol을 투여 받았는데 11명에서 예방효과가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국소진행성 두경부암환자에서 5-FU와 cisplatin 병합선행항암요법시 발생하는 구강점막염의 예방에 allopurinol이 효과적임을 알았다.

28

Treatment Results and Pattern of Failure in Polymorphic Reticulosis

연세의대 치료방사선과

정은지 · 김귀언

1975년 1월부터 1989년 6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치료방사선과에서 Polymorphic Reticulosis로 조직진단되어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임상양상, 병리조직학적 특성, 방사선 치료성적, 예후인자 및 재발양상 등의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Age는 범위가 12~79세(median age 46세, mean age 43세)였고, 40대가 가장 호발 연령군이었으며, 성비는 M : F = 69 : 31로 남성에서 더 호발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 장기에 국한된 solitary lesion이 56명이었고, multiple lesions인 경우가 44명에서 있었다. Ann-Arbor stage IE, IIE가 각각 35, 60례였으며 치료에 따라서는 80년대 중반이후에 일부 환자에서 chemotherapy를 시행하였기때문에 RT alone group이 82명이었고 chemo-radiotherapy group이 18명이었다. 추적관찰기간은 최소 2개월, 최대 150개월이었다(median 35개월, mean 50개월).

방사선 치료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4MV LINAC 또는 Co-60 teletherapy unit를 이용해 local field RT로 26-70 Gy(mean dose 50.2Gy) 조사하였다. 29명의 환자에서 병리조직 slide의 재검토가 가능했는데 Immunohistochemical study 상 모두 T-cell lymphoma에 합당한 소견이었다.

방사선치료후 3개월에 추적관찰한 국소관해율은 완전관해 65명(65%), 부분관해 21명(21%), 였으며 나머지 14명은 NR or PD 양상을 보였다.

치료 후 재발양상을 고찰해 보면 국소재발만 보인 사람이 33명, 국소재발및 원격전이를 모두 발생한 사람이 13명 있었고, 원격전이만 보인 사람이 8명